무서운 조폭

광주 도심 한복판서 행인 폭행

출동 경찰 패고 순찰차도 부숴

도심 한복판에서 행인 1명을 폭행하던 조직폭력배들이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마구 두들겨 패고 순찰차까지 부쉈다. 당황한 경찰은 지원 경력이 도착한 다음에야 이들을 간신히 체포,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3시20분께 광주시 동구 불로동 그랜드호텔 나이트클럽 앞에서 최모(19·충장 OB파)·임모(21·신서방파)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이 클럽 입구 계단에 앉아있던 윤모(24)씨를 폭행했다.

조직폭력배들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윤씨의 얼굴을 마구 때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씨는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윤씨가 맞는 모습을 본 행인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경찰 4명이 순찰차 2대에 나눠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조직폭력배들은 폭행을 제지하던 김모(36) 경장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이모(39) 경사와 홍모(38) 경장에게도 각각 폭력을 휘둘렀으며, 순찰차 2대의 문을 발로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10여명의 추가 경력을 지원받아 진압봉을 빼들고 이들을 포위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인지 모르고 임의동행하려는 순간, 갑자기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무작정 경찰봉과 권총으로 진압을 하면 인권침해 시비가 일 수 있어 처음에는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29일 조직폭력배 4명을 모두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광주 도심 조폭 9개 파 340여명

광주의 폭력조직은 지난 1980년대 '서방파' '양은이파' '오비동재파'등 소위 '3대 패밀리'가 삼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군소 조직이 난립한 상태. 조직폭력배 전담반이 설치돼 있는 광주 동부·북부경찰이 특별 관리하고 있는 조직만 '국제' '콜박스' '수기동' '신양오비' '신양관광' '충장' '무등산' '유동' '신서방파' 등 9개로, 조직원은 340여 명에 달한다.

이들 조직은 건설과 사채분야에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사행성 성인오락실과 성인 PC방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서방파' 두목 김태촌(58)씨가 성인 오락실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나원참 〈6914〉 김종두

연혁2차동림
대주 피오레
1,300여 세대 중 35평형 353세대
문의 (062)366-4220

압수 PC·게임기 1만여대

경찰, 보관 '골머리'

경찰과 자치단체가 사행성 오락실 단속을 통해 압수한 PC와 게임기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압수한 PC는 1만대, 성인 게임기는 200대를 넘어섰다. 경찰서별로는 ▲광주 북부경찰 2천400여대 ▲서부경찰 1천600여대 ▲광산경찰 1천100여대 등이다. 서부·여수·목포 경찰은 29일에도 5곳의 PC방을 단속해 업주를 검거하고 50여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면서 압수품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현재는 직접 보관 중이다. 그러나 저장 공간이 부족해 형사계 보호실·통로에까지 압수물을 쌓아놓고 있다.

각 경찰서들은 해당 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고, 최근 문화관광부도 전국 16개 시·도에 "경찰 등의 도움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서구의 경우 양동 현장민원실 3층에 500여대를 쌓아두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압수품이 늘어 구는 200여만원을 들여 진열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서구는 또 세하동에 별도의 컨테이너 박스를 대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60여대를 보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압수품을 보관해야 하는데다, 무죄 판결이 난 경우에는 기계들을 돌려줘야 해 도난·파손을 막는데 신경을 쓰느라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수능 원서 접수 수능 응시자들이 29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오는 11월16일 치러질 2007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는 다음달 13일까지 출신고교와 교육청에서 이뤄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성폭력' 광주 인화학교 법인 임원진 4명 해임

광주시와 광산구청이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 학교 내 성폭력 등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광주 인화학교의 법인 임원진 4명을 해임시키기로 결정했다.

광주시와 광산구청은 인권위로부터 권고 결정문을 공식 통보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임원진 5명 가운데 4명을 해임하고 새 임원진 구성 등을 요구하는 인권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 관계자는 "감독 관청인 시청과 인·허가 기관인 구청이 권고안을 수용키로 한 만큼 남은 과제는 법인 측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법인 측은 임원진을 서둘러 해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호반아파트 신축 현장 발파 사건

남부경찰, 발파 책임자 입건 방침

광주 호반아파트 신축현장 발파사건〈본보 8월28일자 7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은 29일 발파작업을 지휘했던 '(주) 대한토건' 화약팀장 최모(32)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최씨를 소환 조사했으며, 최씨가 발파 충격을 방지할 안전덮개가 낡았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발파작업을 위임받은 호반건설의 협력업체 '(주)대한토건'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호반 베르디움 2차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6일 인근 1차 아파트 발파작업 중 바위가 날아와 승합차가 파손되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소음피해로 불편을 겪자 공사중지를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여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어등산 불발탄 제거

국방부, 9월 본격 착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본보 4월 28일자 7면〉돼 왔던 미확인 불발탄 제거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29일 "국방부가 최근 어등산 일대의 미확인 불발탄 제거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다음달부터 지하 30㎝ 이하의 금속 탐지도 가능한 특수장비를 갖춘 2~3개팀을 현장에 상주시키면서 본격적인 불발탄 제거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4월 어등산 관광단지 예정 부지 84만 평 가운데 11만 평에 이르는 포사격 탄착지에서 잇따라 105㎜ 야포탄 등이 발견되자 국방부에 제거를 요청했었다. 특히 지하 30㎝ 이하에 박힌 불발탄은 기존 장비로 탐색이 불가능해 공사 착수에 어려움이 컸었다. 탄착지가 골프장 예정지와 가족호텔 인근 등 개발 예정지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4곳에 위치해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등산 일대는 육군포병학교가 지난 1951년부터 1994년까지 포사격 탄착지로 44년 동안 사용했다.

지난 3월 기공식을 한 어등산 관광단지개발 사업은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84만 평에 3천205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2012년까지 27홀 규모의 골프장·테마파크·가족호텔 등을 조성하는 대역사로, 내년 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늑장 진화 광주시가 책임져라"

쌍나팔

○…광주시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주민들이 지난 20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본보 8월21일 6면〉가 소방서 측의 잘못이라며, 29일 박광태 광주시장을 찾아가 보상을 요구.

○…'학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정현) 주민 1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청을 방문해 "화재 당시 동부소방서 소방차의 고가사다리가 펴지지 않는 바람에 진화가 늦었다"며 "시에서 불에 탄 아파트 3동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 6천만원)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감사를 통해 진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소방 공무원을 엄히 징계할 것"이라면서 "보상은 소방법에 따라 최대한 지급할 것"이라고 답변.

○…이 아파트 101동 1202호 박모(65)씨 집에서는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는데, 소방서 측은 "당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다리차를 전개할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해명.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